

##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이대 의전원 예방의학교실 / 정희 경 희

### 즐기는 순서

- ① 취약계층 근로자의 정의 및 국내 실태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 ③ 이주노동자와 산업보건
- ④ 청소년 노동과 산업보건 ⑤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⑥ 고령 근로자의 건강
- ⑦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50%대에 진입하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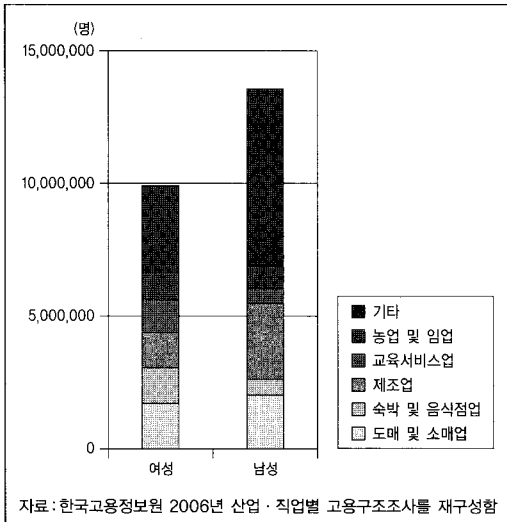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에 근접하고 남성과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5% 내외인 북유럽<sup>2)</sup>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현재로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현재 취업자 중 무려 41.9%가 여성이며, 특히 노동안전보건의 주요 대상이 되는 임금노동자 중 42.4%가 여성이다<sup>3)</sup>.

여성의 고용 현황은 남성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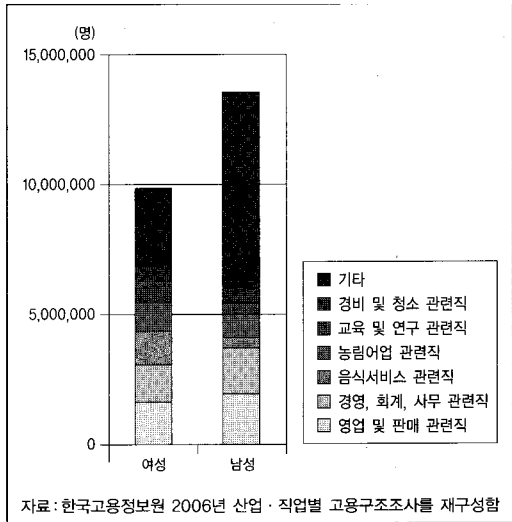
첫째, 여성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및 농업, 그리고

임업에 약 67%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그림 1). 남성은 위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절대 종사자수로 보면 여성과 비슷하지만, 전체 종사자 중 차지하는 구성비는 약 51%에 불과하다. 이는 건설업과 운수업에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산업보건사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에는 남성의 21.1%가 근무하고 있다. 남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 제조업인 셈이다. 여성에서도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이긴 하나, 전체 취업자의 13.3%가 근무하고 있어 남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봉제 의복 제조업에 많이 분포해있으며, 각 세부 직종 중 근골격계 반복작업이 주를 이



〈그림 1〉 성별 산업별 종사자 현황



〈그림 2〉 성별 직종별 종사자 현황

루는 조립과 검사업무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다<sup>4)</sup>.

셋째,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다. 전체 약 200만 명이 이 업종에 근무하고 있고, 이는 여성 전체 취업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특성은 직종에까지 이어져 여성의 13.1%가 음식서비스 관련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2).

넷째, 직업 중분류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에 양성 모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별로 근무하고 있는 세부직종이 다르다. 영업 및 판매

관련직에서는 남성이 일반 영업원, 상점 판매관리인으로 다수 근무하나, 여성은 상점 판매원, 계산원 및 대표원, 방문판매원, 전화통신 판매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에서 여성은 경리사무원, 안내 접수, 전화교환원, 고객상담원, 사무보조원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다. 경비 및 청소 관련직에서 남성은 주로 경비직에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청소원이나 파출부 및 가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sup>5)</sup>.

다섯째, 여성은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남성의 72%, 여성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서비스 관련직에 근무하는 여성의 9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표 1〉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09년 3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307	6,768	100.0	100.0	57.9	42.1	
정규직	5,290	2,375	56.8	35.1	69.0	31.0	
비정규직	4,017	4,393	43.2	64.9	47.8	52.2	
고용계약	임시근로	3,940	4,339	42.3	64.1	47.6	52.4
	장기임시근로	2,116	2,610	22.7	38.6	44.8	55.2
	한시근로	1,824	1,728	19.6	25.5	51.4	48.6
	(기간제 근로)	1,373	1,186	14.8	17.5	53.7	46.3
근로시간	시간제 근로	374	942	4.0	13.9	28.4	71.5
근로제공방식	호출 근로	556	298	6.0	4.4	65.1	34.9
	특수고용	205	427	2.2	6.3	32.4	67.6
	파견 근로	59	72	0.6	1.1	45.0	55.0
	용역 근로	319	257	3.4	3.8	55.5	44.7
	가내 근로	8	61	0.1	0.9	11.6	88.4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9.

에 근무하는 여성의 83.4%가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음식서비스업은 5인 미만 소규모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

여섯째, 2009년 현재 약 65%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표 1〉). 2000년대 초반 70%에 육박하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그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 10명 가운데 6-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 및 각종 노동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9%, 여성 정규직 임금의 58% 가량에 머물고 있다.

이상의 특성을 종합해볼 때, 여성은 현재

산업안전보건사업이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규모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에 있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하 본 고에서는 여성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종인 음식서비스직과 청소직의 노동현황과 노동안전보건 상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음식서비스직

1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경아 등의 연구<sup>6)</sup>에 의하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음식점업 노동자의 경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10시간이었으며, 월 평균 휴일 빈도는 이틀이 가장 많았다.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76%에 이르렀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평균 3,900원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8만원 가량이었다.

사회보험의 혜택도 미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가 10.2%,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1.3%에 불과했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는 1.8%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처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였고, 응답자의 52.5%가 다치고 치료기간 동안 쉴 수는 있으나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식사 시간 이외에는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고, 식사 중에조차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며,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 월 평균 휴일이 이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은 음식서비스 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위 연구에서 근육통 및 관절통이 있다는 응답자는 17.8%, 손목과 팔목의 통증이 있다는 응답자 18.0%, 다리가 붓는다는 응답자 16.3%,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는 16.5% 등 실제 질병이나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37%에 이르렀다.

음식서비스직은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업무이다. 학교에서 급식조리 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과 증상 실태를 조사한 정최경희 등의 연구<sup>7)</sup>에 의하면, 세척, 재료 다듬기, 썰기, 버무리기 등 작업이 손목과 팔꿈치의 사용 빈도가 높고 반복작업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 또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도 허리를 굽힌 불편한 자세로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이런 작업 자세는 무릎에도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또 당시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거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작업 위험요인을 반영하듯, 급식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는 전업주부에 비해 5배나 높았다. 근골격계 증상은 손과 손목이 23.6%로 가장 많았고, 어깨 21.4%, 등/허리 14.5% 순으로 주로 상지와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근골격계질환뿐만 아니라 사고와 피부질환에서도 조리노동자는 전업주부에 비해 높은 위험을 보였다<sup>8)</sup>. 사고의 위험은 무려 7.9배, 피부질환의 위험은 3.2배 증가한 것이다. 사고내용으로는 화상이 45.4%로 가장 많았다. 화상을 당하는 부위는 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 다리 순이었다. 화상 다음으로는 등/허리 등이 빼놓아는 사고가 16.8%를 차지하였으며,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12.6%로 뒤를 이었다.

위 결과는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급식 시설이 체계를 갖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 소규모 음식점업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실태가 더 안 좋을 소지가 높다.

그러나 1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는 데만도 상당한 장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적인 산업보건사업이 음식점업 노동자들은 거의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산재 위험에 놓여 있는 음식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이 시급하다.

## 2. 청소직

청소직은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 3%, 핀란드 4%이고, 스페인 여성 노동자의 10%가 근무하고 있는 중요한 직종이다<sup>9)</sup>.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결과로 볼 때 청소원과 파출부 및 가사보조원으로 분류된 청소직이 전체 종사자의 2.5% 가량이었다. 여성 취업자 중 4.3%가 청소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성희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sup>10)</sup>에 의하면,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음식서비스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은 적었

으나, 여성 청소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400여원 가량으로 더 낮았다. 따라서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66만 여원에 불과했다.

성별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회보험 가입률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으로, 여성 청소노동자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노동시간 자체는 적었으나, 노동시간이 언제 배치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건물청소 업무는 일반적으로 정규노동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위 조사에서 전체 청소용역 노동자의 26.0%는 최근 3년 동안 청소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관련성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로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밖의 사고 요인으로 무거운 물건 취급, 먼지, 분진, 가스 등 오염, 불편한 작업 자세, 세척제 등 화학물질 취급 등이 응답되었다.

직업관련성 질환으로는 근육통과 관절통이 38.8%, 55.0%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환경미화원을 조사한 명준표 등의 연구<sup>11)</sup>에서는 응답자의 72.2%가 근골격계질환의 자각 증상 및 통증이 있다고 답하였고, 상지와 허리의 통증이 가장 많았다. 여성 건물청



〈그림 3〉 슬개전 점액낭염(일명 가정부 무릎, housemaid's knee). 주부와 청소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임  
자료 : <http://www.virginmedia.com/homefamily/health/occupational-complaints.php?ssid=6>에서 따옴

소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청소직 중 과출부 및 가사보조원(이하 가사서비스 노동자)은 여성이 9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업무는 건물청소노동자와 유사하게 반복작업에 의한 상지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옥 구조의 특성상 슬개전 점액낭염(가정부 무릎, housemaid's knee)〈그림 2〉이나 관절염의 위험도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아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여성 청소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호흡기계 및 피부질환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거나<sup>13)</sup>, 아직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 결과조차 없는 실정이다. 40-50대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용역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형태로 선택하게 되는 청소직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음식서비스직과 청소직을 중심으로 직종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대부분은 남성과 같은 이름의 직종에 종사해도 다른 자리, 다른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의 각종 여성 지위 지표만큼 여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관심도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산재사망률이 높은 건설업, 광업 등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해왔고,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은 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상당수가 반복 작업, 서서 일하는 작업을 통해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키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앞으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있어서든 보상에 있어서든 소외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약자가 아

닌 자에도 혜택이 돌아가듯,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처해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

책은 노동자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 2) OECD. LFS by sex and age. 2009.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 4)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07.
- 5)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08.
- 6) 신경아 등.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06.
- 7) 정최경희, 이상윤, 기명, 조기홍, 강희태 등.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위험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2004;16(4):436-49.
- 8) 노동건강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4.
- 9) Zock JP. World at work. Occup Environ Med 2005;62:581-4.
- 10) 김성희 등.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06.
- 11) 명준표, 이항기, 김형렬, 정혜선, 정은희, 남웅 등. 환경미화원의 직업별 근골격계질환 자가증상 특성과 상지의 인간공학적 평가. 대한산업의학회지 2008;20(2):93-103.
- 12) 최영미. 비공식부문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실태 및 정책대안. 2006.
- 13) Zock JP. World at work. Occup Environ Med 2005;62:581-4.